땅끝까지

제107호
—
2018 9+10

전교 주일 담화문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선교 이야기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다리
최효선 수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10월, 전교의 달을 맞으며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전교와 선교는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셨습니다. 노예처럼 살던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지에서 갖은 역경을 이겨내며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전교기구 모든 회원도 선교사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은총을 받았다면, 이런 은총을 나눠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당에 나옴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성당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벗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나에게 진정한 천국이 되겠습니까?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며, 점차 그 대상을 친지나, 직장 동료, 이웃, 나아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산해야 합니다.

10월, 전교의 달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지부장

제107호

땅끝까지



표지
파푸아 뉴기니 쿤디아와 교구, 디리마 본당

2018
9+10월 호

『땅끝까지』는 선교사들과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전교회,
베드로 사도회, 전교연맹 회원들을
위하여 펴냅니다.

발행일
2018년 9월 1일

발행인
김준철 신부

편집인
장형심 수녀

편집
문혜영, 박소라, 임미숙

발행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소
(04918)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화
(02)2268-7103, 460-7608~11

팩스
(02)2268-7104

전자 우편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디자인
blackfinger

목 차

소금 등잔 2
10월, 전교의 달을 맞으며 — 김준철 신부

말씀 그루터기 4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마르 6,11) — 김성현 신부

전교 주일 담화문 8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한국에서 일한다 12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은 우리 — 모니카 야루가 선교사

선교 이야기 16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다리 — 최효선 수녀

지원 후기
달리의 건강 지킴이 — 이광심 수녀 20
초 공장 엄마들의 일상 — 노혜인 선교사 24

해외에서 온 편지
동티모르 — 김민조 신부 28

알림터 29

회원들의 뜨락

묵상 글 33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

선교 길잡이 34
선교의 개념

사랑방 36
성체 조배와 기도의 힘 — 황연옥

쉼터 38
이것이 궁금해요

후원 소식 39

후원 안내와 기도 42

미사 예물 44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마르 6,11)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
대전교구, 몽골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밑에는 날마다 화를 돋우는 먼지, 회의를 품게 만드는 먼지 등 많은 먼지가 붙습니다. 이 먼지를 떨어내지 않는다면 선교사의 발에는 걸음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쌓일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환대보다 면박과 무시 그리고 조롱을 밥 먹듯이 받는 처지로 자신을 던진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자 선교사의 삶을 시작했어도 계속되는 고난에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처지고 용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화시키지 못한 상처들이 마음에 남으면 비슷한 아픔을 만날 때마다 피로가 빠르게 쌓이고 선교사의 마음을 메마른 들판처럼 황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선교사가 힘을 되찾는 방법은 바깥에 있지 않고, 자신이 품고 다니는 복음 안에서 힘을 길어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떨어내야 할 먼지는 발 밑창에 끼고 또 낍니다. 방안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계속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단한 발걸음으로 성체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너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이미 알고 출발한 길이 아니더냐? 너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

제 한국어 학원이 있는 학교의 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교사들이 모두 몽골의 제일 큰 호수인 홉스골





에 다녀올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태라는 말을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언젠가 교장과 함께 저의 게르에서 술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 흉금을 터놓았던 시간들이 겹쳐지면서 그의 무례함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특히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웃음을 섞어 던지는 그의 말마디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비슷한 경우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체육관 기구들을 울란바토르에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기름 값을 요청했고, 자신이 타고 다닐 차 한 대 사주면 안 되겠냐고 슬쩍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도움이다 싶으면 도왔고, 얼토당토아니한 것은 거절하기도 하면서 걸어온 지난 2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자니 제 봉사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정당한 대우도 해 주며, 예의도 바른 이들이 사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자리에 앉아 생각해 봅니다. '돈으로 선교하지 않겠다던 내가 오히려 지금 돈 때문에 화난 것인가? 가난의 정신으로 돈의 힘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내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오늘 제 발밑에 끼어 저의 발걸음을 주저앉힌 먼지입니다. 교장 선생이 던진 돌멩이에 제 마음의 호수는 잠시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건 그의 돌팔매질이고 저는 어떤 돌멩이를 준비해야 할까

'돈으로
선교하지 않겠다던
내가 오히려 지금
돈 때문에
화난 것인가?
가난의 정신으로
돈의 힘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내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요? 무엇 하나 변한 것 없는 똑같은 마을인데 제가 조금 변했습니다. 방금 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계획입니다. 훌륭한 계획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니 선생님들 식사 한 끼 값이라도 내가 내고 싶다고요. 정작 교장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달리 먹으니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날마다 말을 타고 학교까지 다녀오는 일이 중요한 일과입니다. 지난가을에 말에서 떨어졌던 경험 때문에 올여름에 다시 말을 탈 때는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그렇게 우리의 사고와 몸을 굳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달 쯤 날마다 말을 타니 몸도 마음도 긴장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두 마리 샀습니다. 한 마리는 저와 함께 물통을 가지고 물을 받으러 다녀올 만큼 무척 순합니다. 그래서 녀석의 이름은 '좋다'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도살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온 녀석입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드셌는데,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절대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자!"의 '얼렁이'가 되었습니다. 한번은 말을 심하게 듣지 않기에 유목민 친구와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한번쯤 다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채찍을 손에 들고 얼렁이의 등에 올랐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다 까져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채찍을 휘두르며 초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선을 제압했다는 생각이 들기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유목민 친구네 가족들 모두가 구경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박수를 쳐 주고 엄지를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말을 못 탔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했지요. 그럼에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얼렁이가 이제 제 말을 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92차 전교 주일 담화문 요약
(2018년 10월 21일)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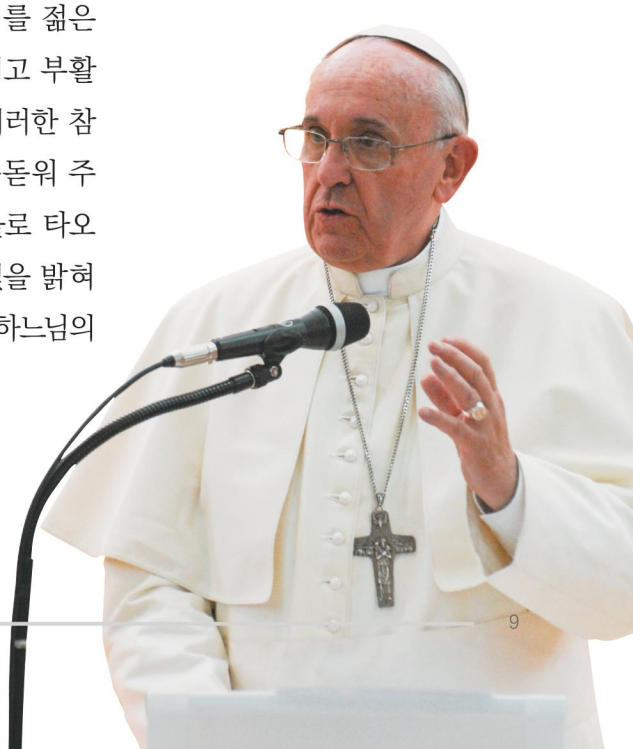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삶의 여정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영원히 젊음을 지켜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모든 이를 향하여 말하도록 저를 다그칩니다.

삶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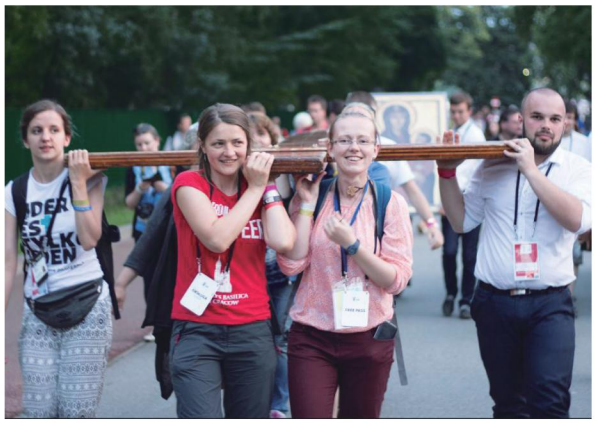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끌리는 것과 파견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젊은 시절에, 사랑의 내적인 힘으로 여기는 두 가지 움직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불현듯 들이닥쳐 우리를 이끌어 가는 삶의 힘을 젊은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느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무를 기쁘게 실천하는 일은 크나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거저 받은 것을 선포하면서(마태 10,8; 사도 3,6 참조),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이끄는 바로 그 길과 진리를 젊은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유를 일깨우시어 이러한 참되고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선포하도록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놓는다는 것은, 그 불로 타오르는 사람을 완성시켜 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을 밝혀 주며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2코린 5,14 참조). 우리에게 하느님의







드넓은 지평을 열어 주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땅끝까지 신앙을 전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도 세례성사로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받은 신앙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여 세세대대에 이어지는 증인들의 위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한 단계의 공존 안에서, 교회의 사명은 세대를 이어 주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의 핵심인 신앙 전수는 사랑의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쁨과 열정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성사적 현존과는 여전히 이질적인 인간 문화 종교 상황들이 가장 변방인 "땅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선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었습니다(마태 28,20; 사도 1,8 참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민 선교(missio ad gentes)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매우 상대적이며 언제든 쉽게 '항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세상, 곧 너무나 만연하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는 경계를 허물고 거리감을 없애며 차이를 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가깝고 바로 손닿는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삶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삶의 참된 친교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헌신하여야 합니다(루카 9,23-25 참조).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 참조)에게 봉사하는 길을 선교 자원봉사 활동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사랑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증언합니다. 이 칭찬할 만한 선교 봉사의 기회는 보람찬 시작이 되고, 성소 식별을 통해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이번 10월 전교의 달에 젊은이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우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 언제나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선교 제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은 우리

모니카 야루가(Monika Jaruga) 선교사
하느님자비복음의종선교회











1. 어머니와 함께
2. 첫영성체
3. 어학당에서
4. 두봉 주교의 방문

언제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나요?

저는 바르샤바 근처의 작은 숲속 마을에서 살았어요.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아버지는 폴란드의 개혁을 주도한 자유노조(solidarność)의 활동가였어요. 우리 집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 생각이 제가 선교사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무 살 적에 9박 10일 동안 침묵 피정을 다녀왔어요. 피정 마지막 날에 제가 어떤 삶을 선택해도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라고 하시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 삶을 바치고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자비복음의종선교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하느님자비복음의종선교회는 2002년 9월 27일에 독일 뮌스터 교구장 주교가 승인하여 설립된 선교회예요. 한국에는 2006년 4월 24일에 진출했고, 현재 4대륙 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양성 과정은 수도회와 비슷하게 청빈, 정결, 순명 서약을 하고 더하여 형제애 서약을 하는 봉헌 생활자들이에요. 그리고 양성 과정을 별도로 가지지 않고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선교회의 카리스마로 살아가는 평신도 회원도 있어요.

우리 집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1. 도보 순례
2. 2012년 피앗 프로그램(캄보디아)
3. 2013년 6월 청년 피정
4. 10주년 감사 미사

한국으로 파견된 계기가 있을까요?

2004년 여름에 저는 스페인에서 선교회 연 피정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피정에서 일본 공동체 선교사들이 일본과 한국의 많은 청년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에게 중·고등학생 시절은 가장 편하고 아무 걱정이 없던 나날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삶을 버리는 것을 생각할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곧바로 원장 선교사에게 제가 느낀 것을 말하고 이 느낌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우리 선교회는 하느님의 섭리대로 소유물 없이 살아가요. 한국에 들어올 때도 살 집조차 없이 왔어요. 우리는 선교회의 목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젊은이들과 활동하기에 대전교구 청소년사목국과 자주 연계해서 활동해요. 저는 젊은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 확신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피앗 프로그램에 참석한 아이들이 공항으로 갈 때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생기발랄하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의 섭리를 느껴요.




피앗 프로그램(태국)



선교사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삶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자비의 선교사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한국의 주최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함께 국내 도보 순례를 했어요. 이때 성과가 좋아서 올해부터는 한국과 일본이 교류 모임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선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선교사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소화 데레사 성녀는 "선교사는 이미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기에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삶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다리

최효선 가타리나 수녀
위로의성모수녀회, 스페인 선교





스페인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피부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장마철을 보내면서 '차라리 태양이 쏟아지는 게 낫지.'라고 중얼대는 것을 보면 스페인의 딸이 되어 가나 봅니다. 고국의 공항에서 꼬마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라고 묻는 것을 보면 이제는 외형까지도 변하는가 봅니다.

비가 드물게 오는 스페인에 비가 내린 날 우리 동요 '구슬비'의 가락을 들려주고 시를 지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머리를 감싸고 끙끙대다가 금세 가사를 만들어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교로 옮길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고 리코더로 함께 연주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서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스페인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피부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장마철을 보내면서
'차라리 태양이 쏟아지는 게
낫지.'라고 중얼대는 것을 보면
스페인의 딸이
되어 가나 봅니다.





저의 교과목인 음악 시간은 참 즐거운데, 담임 시간에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힘듭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구르의 잠언이 떠오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잠언 30,9).

하루는 어머니날에 선물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선물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남학생들이 팔레트를 씻다가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화장실을 발견하자마자 기겁하고 땀을 빼며 낙서를 지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다음 날 아이들에게 청소 도구를 가져와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청소가 대축제인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흥이 나면 청소를 시작하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들썩거리고 생난리였습니다. 반장은 대걸레로 깨끗한 유리창을 벅벅 문질러 망쳐 놓았고요.

몇 년 전에 대사관을 들렀더니 남루한 차림의 우리 동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잠언 30,9).







대사관 직원이 카나리아 제도의 한국 원양어선에 일하러 가던 조선족이 마드리드에 잘못 내려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이 한 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주소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 수업이 있어 헐레벌떡 학교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생각나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 식당에서 음식을 챙겨 갈까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기적적으로 그들을 채용한 회사가 대사관으로 연락이 와서 카나리아 제도로 가는 비행기에 모두 탑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지난해 저에게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가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에 사랑하는 제자가 하느님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실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돈 보스코 성인은 청소년에게 부드러운 정서와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래 생활한 신자가 "30년 전에도 교회는 노인들로 가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노인들이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첫영성체나 견진성사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장년·노년기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의미겠습니다. 스페인 교회에서는 첫영성체나 견진성사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을 다시 불러오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교리 교육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럽 청소년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 교육 기관은 바로 복음화의 심장이라고 확신합니다.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고자 저는 오늘도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딜라의 건강 지킴이

이광심 아녜스 수녀
살레시오수녀회, 에티오피아 선교

우리가 운영하는 진료소의 이름은 살레시오 수도회의 창립자인 돈 보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돈 보스코 클리닉'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딜라에서 우리 진료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유명합니다. 저는 진료소가 유명한 이유가 후자라고 믿습니다.

돈 보스코 클리닉을 시작한 지 어느덧 33년이 흘렀습니다. 흙으로 만든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진료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5개의 방으로 된 작은 집과 15개의 치료 공간을 가진 번듯한 진료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료소가 넓어지면서 하루에 150명의 환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3명의 선교사가 본토 직원들과 함께 진료소의 모든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유아 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직업 학교, 여성 복지 활동, 본당 활동 등 이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 사람들이 요청하는 요구에 응답하고자 노력합니다. 진료소뿐만 아니라 2개의 유치원에서 560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2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300명의 직업 학교 학생이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직원도 150명이 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개 세를 얻어 살거나 무허가 판잣집이나 버려진 집에서 삽니다. 기업체나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낙후한 환경 탓에 지역 사람들의 60%가 하루 품삯으로 생계를 이어 가거나 농업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 갑니다. 미래를 바라볼 틈도 없이, 현실에 치여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도움이 이들에게는 간절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틈도 없이,
현실에 치여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가 먼저 생각나겠지만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 농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고는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빈부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먹지 못해 아픈 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이들을 치료하려면 밥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들과 면역 결핍과 결핵 등으로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노인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한계로 제공하는 식사가 한정적이다 보니 어려운 이들 가운데 더욱 사정이 딱한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이들을 가려내는 일은 정말 안타깝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5-36).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에서 도와준 후원금은 많은 이들의 식사가 되어 그들이 건강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2017년 3월 16일에 에티오피아 돈 보스코 미디움 클리닉 급식 사업을 위해 이광심 아녜스 수녀에게 8,452,498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적인 한계로
제공하는 식사가
한정적이다 보니
더욱 사정이
딱한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이 일은
정말 안타깝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초 공장 엄마들의 일상

노혜인 안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선교



아침 8시가 되면 시작 기도와 함께 초 공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공부방 아이들이 주모경을 바치면 초 공장에서 일하는 10명의 엄마 가운데 기도 당번이 자유 기도를 바칩니다. 엄마들의 자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는 감사 기도와 더 많은 고객입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저희가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초를 주문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아멘". 정말 겸손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초 공장을 운영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초가 적게 팔리면 엄마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어 힘들고, 반대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하니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한가득 안고 있으면 엄마들은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저를 다독여 줍니다. 주문이 없으면 쉴 수 있고, 주문이 많으면 월급을 받으니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필리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초 공장 사무실의 모습






교육 활동(세미나와 피정)







1. 초 공장 사람들과 단체 사진
2. 복지 활동(야유회)
3. 초 판매

한번은 엄마들에게 초 공장이 주는 의미를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답 가운데 "초 공장에서 일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나이도 많은 제가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초 공장 덕분에 우리 가족은 밥을 먹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었지만 선교사로서 길을 잃은 저에게 나침반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선교사가 되었는데, 초를 판매하는 상업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의 대답을 듣고 나니 상업적인 일이라도 가난한 이들의 힘든 현실을 다독일 수 있는 일이면 하느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5~6일을 엄마들과 초 공장에서 지내다 보니 그들의 고민을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마약이나 범죄에 취약한 빈민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초 공장에 공부방을 만들기로 했고 지난해 2월에 드디어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초 공장 공부방에서 기도하고, 숙제를 한 뒤, 장난감과 교구



공부방에서 즐거운 아이들

들을 가지고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부방에 머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 공장의 엄마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교사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사업이 있으면 선교사가 떠나도 자립할 힘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초 공장의 엄마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초 공장을 꾸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이 느낍니다.

이제야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안녕과 영위를 위해 소비할 수도 있었을 제 삶을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시고 저를 도구로 써 주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선교사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사업이 있으면
선교사가 떠나도
자립할 힘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2016년 10월 31일에 필리핀 양초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과 시설 보수 사업을 위해 노혜인 안나 선교사에게 12,89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From.

동티모르



올해 상반기에 받은 지원금으로 수도원 옆에 있는 파히소이 초등학교를 보수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도움 덕분에, 아이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용기 내어 다시 관할 구역인 베레레오 지역의 학교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곳에 있는 1~3학년 교실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지금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수업할 교실이 없다보니, 선생님마저 다른 학교로 떠나 버렸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민조 하상 바오로 신부 드림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2018년 교황청 전교회 보조금 전달

교황청 전교회 한국지부는 로마본부의 공문(Prot.N.2250/018/POPF)에 따라, 전교회 보조금 160,000달러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국가	교구	금액(달러)
한국	원주	33,000
	안동	33,000
	마산	33,000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	61,000
합 계		160,000

2018년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보조금 전달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한국지부는 로마본부의 공문(Prot.N.18/006)에 따라, 어린이전교회 보조금 118,776.96달러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국가	금액(달러)
우간다	47,776.96
짐바브웨	45,000.00
에콰도르	26,000.00
합 계	118,776.96

제92차 전교 주일 포스터 발행

2018년 제92차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에서는 전교 주일 홍보 포스터를 발행했으며, 각 본당에 게시할 수 있도록 교구별로 배포했습니다. 만민 선교를 위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제55차 성소 주일 헌금 교구별 집계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에서 집계한 2018년도 성소 주일 헌금 총액은 1,694,260,393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74,765,679원이 증가했습니다. 신학교와 수도자 양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구별 헌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구	금액(원)	교구	금액(원)
서울	422,961,960	부산	105,679,650
춘천	33,667,900	청주	50,238,800
대전	93,448,000	마산	56,257,100
인천	101,058,903	안동	20,649,150
수원	223,000,000	광주	100,317,650
원주	29,350,130	전주	56,876,210
의정부	98,752,290	제주	42,073,860
대구	251,771,690	군종	8,157,1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2018년도에 납부한 기부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와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회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예정이며, 영수증을 처음 발급받을 회원은 기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을 동의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홈페이지 개편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을 완료하여 2018년 9월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열 예정입니다.

▶ 회원 참여

4개 기구에 회원 가입과 일시 후원을 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과 주소 변경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미사 예물

미사 예물을 신청할 수 있고, 미사 예물이 전달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교황청 전교기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볼 수 있으며, 성소 주일과 전교 주일 교황 담화문과 포스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꿈나무 캠프

교황청 꿈나무 캠프의 안내와 일정표를 확인하고, 캠프 참가를 신청합니다.

▶ 선교사

해외 선교 사업 지원과 선교 체험 수기 모집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선교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해외 선교사 지원 신청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해외 파견 선교사 지원의 일환으로 해마다 두 차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해외에서 선교하는 한국인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
▶ 지원 내용: 지원을 신청하는 선교사가 직접 동참하는 선교 사업
(특히 선교지 본토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복음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
▶ 신청 기간: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 신청 방법: 전자 우편(pmsk@pmsk.net)이나
우편 접수(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 문의 사항: 전자 우편, 전화(02-460-7609)

지원을 받은 후에는 선교지 소식을 작성해야 하고, 기구에서 지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후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교지 소식과 지원 후기는 『땅끝까지』에 게재됩니다.

선교사 방문

♥ 5월 23일,
스페인에서 선교하는 전교가 르멜수녀회 공병선 마리아 수녀가 방문했습니다.
♥ 5월 23일,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전교가 르멜수녀회 정춘실 데레사 수녀가 방문했습니다.
♥ 5월 23일,
남아공에서 선교하는 보혈선교수녀회 최경숙 마리 스텔라 수녀가 방문했습니다.



(왼쪽부터 공병선 수녀, 최경숙 수녀, 정춘실 수녀)

회원들의 뜨락

「회원들의 뜨락」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후원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회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선교에 대해 묵상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언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자로 살아가던 어느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 근처 식당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정신없이 먹고는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순간적으로 식당 문을 열고 후다닥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 할머니의 외침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조금 전까지 그는 사회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불이라도 지르고픈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외침을 듣는 순간, 쌓였던 분노가 다 사라지고, 눈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 합니다. 더불어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고, 결국 파라과이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사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느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 끝까지 하느님을 부인하고, 미움과 절망을 택한다면 영원한 어둠 속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옥이 아닐까요? 따라서 천당이나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활동에 더욱 투신하며, 또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의 개념

지난 호에서는 과거 가톨릭 교회의 선교 활동에 이어 『선교 교령』과 『현대의 복음 선교』에 드러난 선교와 복음화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중심으로 선교와 복음화의 관계와 직접 선교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3) 교회의 선교 사명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선교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며 반발이 일고 여러 제반 상황이 변하자,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를 반포하여 '선교'에 대응하는 말로 '복음화'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복음화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지역 교회를 설립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활동과 가치관, 생활 양식, 문화 등을 복음의 가치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활동을 뜻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의 총체적인 사명인 복음화를 강조하게 되자,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지역 교회를 설립하는 활동이 위축되며, 선교 활동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을 반포하여 전통적인 선교 활동에 다시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교황님은 '복음화' 활동을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 사목 활동, 새로운 복음화로 세분함으로써 선교와 복음화와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였다.[1)]

1) 『교회의 선교 사명』 33항

1)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지역 교회를 설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Missio ad gentes'(만민 선교)라고 부른다. 대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사목 활동은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펼치는 사목적 배려를 의미한다. 대상은 기존 신자들이다.

3) 새로운 복음화(재복음화)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거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유리된 생활을 하는 지역이나 신자들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열의와 방법으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고유한 의미의 선교,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선교가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며 이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교황님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요인으로 열성의 부족과 그리스도인들의 분열, 신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악표양 등을 지적하신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교'와 '복음화'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곧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성직자를 양성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직접 선교'라고도 부른다. 또한 선교와 전교는 모두 'missio(mission)'를 번역한 단어로 같은 뜻이다.

한편 '복음화'는 '교회가 펼쳐야 하는 모든 사명'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쓰이며 '간접 선교'라고도 칭한다. 또한, 복음화를 복음 선교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사랑, 평화가 넘치도록 복음화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교황청 전교기구 회원으로서 직접 선교, 곧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에도 더욱 투신해야 하겠다.

성체 조배와 기도의 힘

황연옥 베로니카
베드로 사도회 회원, 광주대교구 남동본당

제가 5살 때 동네 사람들 모두가 우리 집에 와서 텔레비전으로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저는 혼자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저는 하느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그때 저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개신교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교리를 들었고, 개신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신 친구가 다니는 천주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그렇게 광주에 있는 임동본당을 갔고, 22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개신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해서 처음 성당에 다닐 때는 성모님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본당에서 알게 된 동생이 준 성모님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이 책이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을 가지게 해 주었어요. 이때부터 성모님에 푹 빠져서 본당 전교회장에게 서울에서 성모님에 대한 책을 사 달라고 부탁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인전도 많이 봐서 한때는 소화 데레사 성녀에게 완전히 반해서 수도 생활을 할까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어요.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저의 조건은 가난해도 되지만 저와 자녀가 성당에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성당을 다녀도 되지만 자신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당신도 성당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다녔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시작으로 남편을 포함해 많은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라 성당에 다니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중풍과 치매를 6년 동안 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십자가를 옆에 두면서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고통받으시면 되겠니? 나도 같이 받아야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교리도 배우기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성녀 같은 말을 하고 떠났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과 시숙의 간병을 도맡아서 남들이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일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힘든 일을 날려 버릴 비장의 무기, 성체 조배와 희생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체 조배실이 생기기도 전에 저는 힘들 때마다 감실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면 희생의 기도로 어려움을 모두 봉헌했어요. 저는 희생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천상에 보물을 쌓는다고 생각했어요. 요셉 성인도 갖은 고생을 겪고 나서 이집트의 제상이 되었듯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내면 좋은 일이 올 것이라 믿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힘들어도 항상 웃었는데 큰아들이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둘 다 사제가 되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한 적은 없고 그저 제 삶을 보여 주었어요. 남편이 천주교 집안이 아닌데도 아들들을 예수님께 봉헌하도록 따라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큰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할 때는 아들이 원하니까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간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충격을 받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아들의 도시락에 남편 몰래 응원의 편지를 넣어 아들에게 힘을 주었지요. 아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에도 다른 엄마들은 다들 우는데 저는 아들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지금은 아들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돈 보스코 성인을 닮은 거룩한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언제나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힘으로 일하라고 하지요.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지냈으면 해요.

이것이 궁금해요

개신교 형제들과의 대화와 협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 선교지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선교사들 간의 경쟁과 불화는 좋은 표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서로 화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만 참된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사도 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실천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서로 오해도 많고 갈등마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먼저 성경과 교리 공부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신자 재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참된 삶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과 지역 사회를 위한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우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교의 바탕 안에서 상대방의 교리와 전통에 대해 배우고, 이해해 나간다면 서로 품고 있는 오해는 차차 해소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개신교나 천주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선교 활동을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세계 선교 기도 지향

10월 수도자의 사명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18년 5~6월까지
후원 회비 납부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회원

교황청 전교회 조으뜸(서울대교구 아차산본당,재가입) 이명분(인천교구 선학동본당) 윤옥경(대구대교구 기계본당)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이명분(인천교구 선학동본당) 김은서(광주대교구 소록도본당)

2. 회비 내역

교황청 전교회

연회비

고정자 김정희 김현숙 문현숙 박경숙 배화자 서찬석 신운식 윤경숙 이명옥 이상순 이춘수 장을순
장춘도 전상경 정연석 정임숙

월회비

강나경 강두호 강미미 강성숙 강성오 강성춘 강순희 강영민 강원경 강윤숙 강정은 강준선 강태식
강태종 고안희 고옥자 고은주 고정희 고춘선 고현자 곽진희 곽태이 곽현선 구옥자 구재엽 구현정
국명철 권병일 권수현 권영근 권오영 권오희 권은선 권혜란 금진숙 김경숙 김경식 김경희 김계림
김계현 김광희 김국주 김군자 김금순 김기순 김기해 김남영 김남혁 김대국 김덕순 김동희 김두찬
김령자 김명리 김명숙 김명화 김문영 김문자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옥 김미이 김미정
김민관 김민흠 김병삼 김봉숙 김부연 김분순 김 삼 김상임 김상철 김석원 김석자 김선경 김선례
김성례 김성민 김성배 김성숙 김성용 김성은 김성진 김성철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 김 송 김송유
김수민 김수진 김숙경 김순남 김순우 김순희 김승유 김시환 김신영 김신자 김양순 김언연 김언주
김연규 김연식 김영순 김영실 김영엽 김영주 김영채 김영하 김영희 김용태 김용희 김원두 김원희
김유경 김유선 김유숙 김윤규 김윤미 김윤자 김은우 김은준 김은희 김인경 김인숙 김인자 김인환
김인희 김일순 김자경 김재우 김정기 김정동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한 김정호 김종배
김종신 김종애 김종호 김종희 김주한 김주희 김준곤 김지묵 김지연 김지온 김지현 김지환 김진고
김진례 김진모 김진태 김진해 김찬숙 김창곤 김 철 김초자 김추분 김춘자 김태연 김태영 김태헌
김태흥 김현동 김현배 김현석 김현숙 김혜순 김혜영 김홍중 김화경 김화영 김화자 김황중 김효숙
김희숙 김희정 나 솔 나윤자 남경우 남궁향숙 남기문 남삼현 남상호 남현아 남현우 남혜란 노언희
노유진 노현숙 노현지 노희균 도재홍 두옥순 류기봉 류재웅 류지영 맹선옥 맹흥순 모상선 문병국
문수영 문정환 문혜경 문혜영 문 희 민구희 박경란 박경인 박경자 박계숙 박귀례 박귀자 박금선
박기연 박동근 박동혁 박동환 박만재 박미란 박미성 박미수 박병선 박병익 박병호 박복실 박상석
박상운 박선희 박성기 박성순 박성희 박소라 박소연 박소영 박수현 박수환 박순덕 박연순 박연실
박연희 박영란 박옥남 박옥희 박윤재 박재완 박재준 박정수 박정숙 박정순 박정희 박종신 박종훈
박주몽 박주찬 박주현 박준성 박지연 박지철 박진명 박창목 신부 박충서 박필수 박하순 박해준
박현숙 박혜신 박혜자 박홍규 박화선 박희실 박희자 박희현 방경희 방명순 배명순 배문찬 배봉한
배숙희 배혜영 배화자 백순임 백순자 백중기 백흥관 백희정 변선화 변일서 보은본당빈체시오회
상채옥 서경애 서계희 서문규 서복순 서성민 서수경 서영석 서영숙 서영일 서옥순 서정란 서학순
서행용 석영애 석종례 석지현 설아현 설지현 설화영 성미숙 성준용 손광옥 손명수 손문희 손애란
손인숙 손희준 송경배 송광섭 송기병 송란주 송명숙 송석호 송승은 송옥섭 송은숙 송중연 승진숙

신귀덕 신귀자 신순복 신승호 신영혜 신원선 신정목 신부 신태균 심순희 심일구 심재봉 심혜연
안경자 안경희 안계창 안덕수 안동필 안미숙 안부용 안양자 안영자 안영철 안지연 안지현 안철민 신부
안현정 안혜영 양도균 양문순 양미경 양순정 양승균 양승룡 양유생 양현철 양홍선 염승희 염우석
염주인 오경옥 오동훈 오미례 오미자 오순자 오영인 오영주 오예진 오윤서 오윤자 오인자 오주호
오희숙 우미선 우봉기 운난향 원광수 원권식 원영미 유경빈 유대식 유명희 유병조 유보라 유봉윤
유성종 유소형 유숙자 유숙희 유양자 유영옥 유인숙 유정열 윤기분 윤기중 윤보나 윤복숙 윤상현
윤석진 윤성자 윤순례 윤승용 윤양숙 윤연순 윤영일 윤옥경 윤용범 윤은숙 윤정미 윤주원 윤준혁
윤지순 윤한옥 윤현철 이갑수 이경란 이경미 이경빈 이경식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은 이광재
이귀순 이귀주 이규대 이규자 이규천 이금자 이기은 이남순 이만덕 이명분 이명승 이명아 이명희
이문희 이미하 이민아 이민주 이병옥 이병은 이복상 이복희 이상복 이상연 이상진 신부 이서연
이 석 이석두 이석우 이선경 이선영 이선일 이성신 이성희 이소영 이수명 이수원 이수진 이숙자
이순복 이순영 이순옥 이순자 이승연 이승재 이승현 이시연 이신영 이영길 이영숙 이영심 이영애
이영인 이영자 이영훈 이영희 이옥자 이용우 이우보 이윤녕 이윤례 이윤서 이은화 이은희 이의숙
이인수 이인재 이재민 이재연 이재희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옥 이정자 이정주 이정준 이종인
이종훈 이주영 이준숙 이진영 이찬우 이채혁 이철훈 이춘득 이하늘 이한영 이한준 이해경 이해숙
이현무 이현순 이현옥 이현주 이형석 이혜경 이혜령 이혜민 이혜훈 이홍일 이환섭 이효종 이희길
이희란 이희아 이희열 이희자 임강숙 임경옥 임덕희 임미라 임미숙 임병희 임분도 임영기 임영남
임종학 장기순 장명숙 장문희 장미자 장보순 장선엽 장성순 장성천 장순옥 장영현 장윤희 장재희
장지영 장천수 장향숙 전명희 전미순 전민정 전복호 전상경 전성운 전숙연 전연숙 전종문 전희정
정두용 정문국 정석원 정성효 정소진 정숙지 정안순 정영석 정영숙 정영애 정영호 정완호 정우석
정우순 정의숙 정인순 정재형 정종원 정찬욱 정철원 정충영 정회승 제갈광호 조경윤 조명하 조미혜
조병권 조병학 조병호 조상현 조성애 조성옥 조송자 조수연 조순덕 조순정 조숭인 조아영 조양경
조연향 조용원 조원자 조유미 조윤희 조은아 조지애 조학순 조향순 조 헌 조현일 주미선 주인해
주효순 진경자 진인정 진진옥 차영희 차정운 차혁진 차혜순 채윤제 채은경 채정덕 채희자 천귀심
천선녀 천윤경 최강일 최경옥 최경은 최경일 최경희 최구현 최동자 최두성 최명자 최문성 최미경
최보미 최복련 최선이 최선진 최선희 최성희 최세현 최영랑 최영순 최영자 최영희 최유정 최윤복
최윤서 최은나 최재정 최재철 최재혁 최정은 최정호 최중경 최혜원 최희자 추재학 하명순 하 옥
하정희 한규범 한동환 한명석 신부 한상신 한상애 한상진 한순숙 한용애 한용주 한은애 한 정
한정욱 한종욱 한혜연 한호섭 한호승 한호연 함설희 허영민 허영애 허정현 허홍근 현계생 현재훈
홍금숙 홍새봄 홍성희 홍순기 홍순명 홍순정 홍순철 홍승표 홍영희 홍정애 홍정자 홍주희 홍지혜
홍행실 황귀남 황동석 황부자 황성욱 황성희 황재삼 황혜숙

기타

강두호 김초자 박지철 신원선 신중석 채정덕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연회비

권정자 김순희 김영아 신영자 윤기호 조인국

월회비

강경희 강금석 강금숙 강길자 강명호 강병수 강성순 강영민 강영준 강운룡 고옥자 고춘선 구기석
구미자 구신남 권성순 권수정 권숙영 권순현 권용현 권윤주 권준하 권태영 길혜자 김가은 김간난
김경숙 김경원 김광시 김국주 김근영 김근호 김기영 김남영 김대수 김명숙 김명옥 김무진 김미선
김미정 김민정 김병구 김병삼 김복남 김봉심 김선경 김선희 김세연 김수연 김수정 김순희 김승기
김승현 김신영 김양수 김연규 김영경 김영균 김영숙 김영자 김영희 김옥화 김용선 김용화 김우경
김원용 김유리 김유화 김은경 김은정 김은희 김재경 김재만 김정녀 김종선 김종연 김주철 김지영
김지혜 김지환 김진혁 김춘자 김하진 김헌철 김현철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화순 김화자
김흥년 신부 김희정 나경민 나지민 남경우 남궁균 남기수 남상호 남현정 노병금 노승신 노연승
도재홍 류지원 맹준호 문세훈 문재일 문주미 문중갑 박경순 박귀순 박금연 박기성 박대석 박동혁
박명안 박미주 박민영 박상배 박성경 박수정 박숙경 박순덕 박순임 박연희 박은영 박이경 박익자
박인국 박재승 박점옥 박정숙 박종안 박종일 박주현 박준성 박진규 박진영 박찬결 박창목 신부
박풍자 박한순 박혜숙 박훈갑 박희숙 방경란 배인석 배정연 백혜경 변기영 몬시뇰 변상돈 변선화
변혜련 서미정 서정희 서지우 성묘야 손인숙 손 혁 손희탁 송광섭 송란주 신경희 신영남 신영자
신한나 신혜희 심찬희 심혜숙 심훈희 안경수 안경자 안광수 안현정 양승룡 양인자 염고운 염바름
염예은 오동춘 오민정 오윤수 오재택 오정숙 오혜숙 우미선 우형원 신부 원경아 유경호 유명순
유비아 유제성 유종열 유지수 유현숙 유혜설 유희배 윤기호 윤미선 윤선애 윤승용 윤승환 윤하은
윤한솔 이건표 이경빈 이경옥 이경임 이경자 이계순 이관애 이규자 이기자 이명분 이명숙 이명아
이명희 이미선 이미영 이보배 이복남 이상수 이상희 이수덕 이수연 이수용 이순옥 이순진 이승남
이승준 이승환 이연숙 이영남 이영수 이영옥 이영자 이영지 이영희 이옥진 이용신 이용태 이인재
이재열 이정숙 이종구 이종순 이종해 이 진 이진영 이진이 이창효 이철우 신부 이춘자 이충서
이충수 이필선 이향남 이현정 이혜경 이혜령 이혜숙 임병희 임상무 신부 임성열 임영미 임혜란
장기연 장성천 장영옥 장향숙 전진철 전흥수 정기옥 정미옥 정민희 정소미 정소진 정연순 정영옥
정우영 정원서 정융자 정정규 정정자 정한승 정환일 정희순 조경현 조근자 조민영 조민정 조민준
조병기 조봉희 조석순 조성애 조인국 조지현 조평운 주종욱 지경숙 진양자 진인정 차영숙 채서진
최명선 최명환 최명희 최미환 최선영 최순영 최신영 최영룡 최영순 최은영 최의자 최인숙 최정은
최정희 최진휴 최현창 최형규 최혜숙 추민경 추현서 표정자 하순복 하정희 한경은 한선옥 한성림
한승윤 한영수 한유경 한은영 한창전 한호연 함동훈 허성수 허은총 현명옥 홍기영 홍상희 홍새봄
홍선미 홍순정 홍승재 홍승표 홍지나 홍희숙 황순자

기타

김영자

3. 사랑의 성금

2018년 5~6월에 보내 주신 사랑의 성금은 총 450,000원입니다.

5월

개인 이헌옥 50,000원 황용하 50,000원
단체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50,000원

6월

개인 신영규 100,000원 윤소희 50,000원 이헌옥 50,000원 황용하 50,000원
단체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50,000원

회비 납부 안내 (후원 문의 : 02.2268.7103)

후원은 또 다른 선교입니다.

지로 7524424
국민 045-01-0155-088
신한 100-027-267395
우리 1005-801-858453
하나 388-910003-06104
우체국 012823-02-225971
농협 351-0097-3281-03
[예금주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회원들을 위한 미사 봉헌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은
9월에는 회원들이 주변의 이주민들을
관대함과 참된 사랑으로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회원들이 냉담하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전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은총을
청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전교회 기도문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의 수호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선교의 수호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인류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만백성의 구원을 위한 성사가 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계속되게 하소서.
또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안에 한 가정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92차 전교 주일 2018년 10월 21일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회원 가입 문의 02.2268.7103 전자 우편 pmsk@pmsk.net

미사 예물



접수 안내 (02.460.7609)

가난한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이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국민 292501-01-084841
신한 100-027-267349
우리 1005-201-838316
하나 388-910003-64204
우체국 010231-01-002369
농협 351-0097-3257-83
[예금주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2018년 5~6월 미사 예물 전달

후원 회원님들이 신청한 미사 예물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일자	내역	미사(대)	금액(원)
5월 2일	필리핀 이상원 신부	134	2,010,000
5월 11일	베드로 사도회 로마 본부	718	10,774,200
5월 15일	파푸아 뉴기니 박세철 신부	133	2,000,000
5월 24일	케냐 이동욱 신부	133	2,005,045
5월 24일	잠바브웨 이덕형 신부	135	2,025,045
5월 29일	파푸아 뉴기니 김희근 신부	134	2,010,000
5월 31일	콜롬비아 김문정 신부	136	2,040,000
6월 8일	가나 김남두 신부	134	2,010,000
6월 26일	말라위 최광규 신부	134	2,010,060
6월 28일	멕시코 안장근 신부	134	2,010,000
합계		1,925	28,894,350